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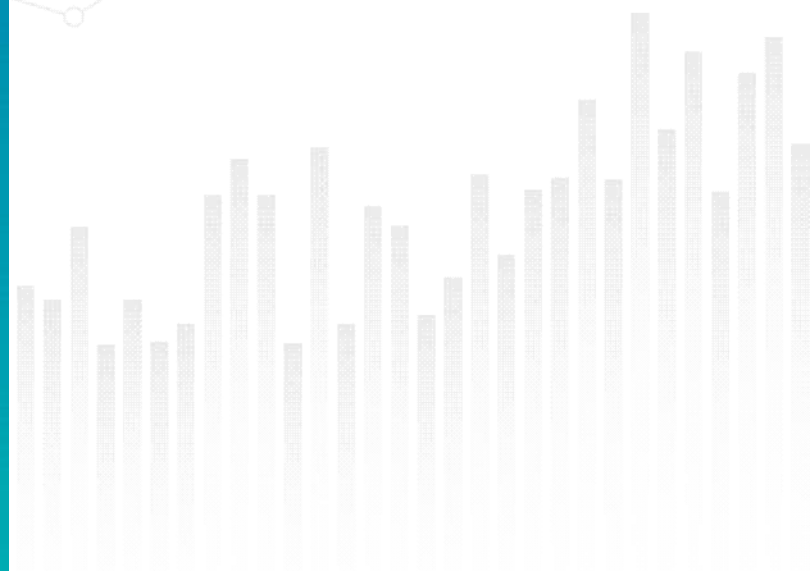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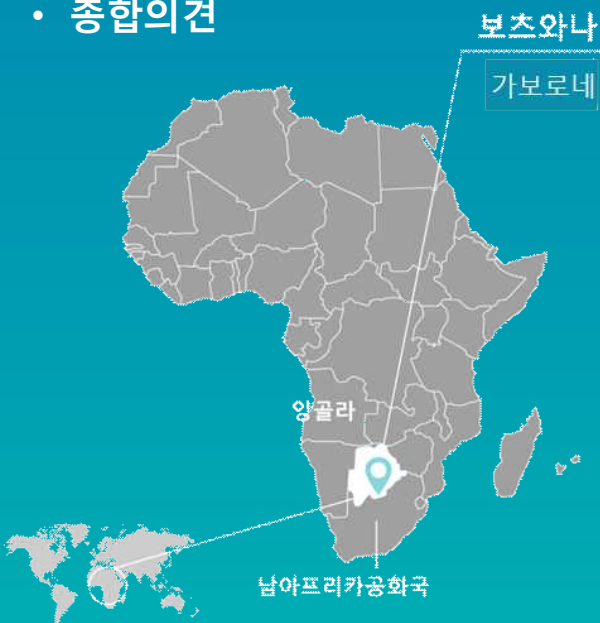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보츠와나

Republic of Botswana

2019년 4월 5일 | 조사역(G3) 정수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 | | | |
|--|---|--|---|
| 면적 582천 km ²  | 인구 2.33백만 명 (2018 ^e)  |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 대외정책 친서방 비동맹  |
| GDP 190.70억 달러 (2018 ^e)  | 1인당GDP 8,168 달러 (2018 ^e)  | 통화단위 Pula (BWP)  | 환율(U\$기준) 10.20 (2018 ^e)  |

- 보츠와나는 아프리카 남부의 남아공 북쪽에 접경한 내륙국으로, 한반도의 2.7배에 이르는 넓은 영토에 인구는 2.3백만 명(2018년)에 불과하나 1인당 GDP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최상위에 해당되는 나라임. 세계 3위의 다이아몬드 생산국으로,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니켈, 철광석 등 부존자원이 풍부함.
- 다이아몬드 등 광물자원의 생산·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나, 최근 3년 간 총외채잔액/GDP 비중이 20%대로 꾸준히 감소하고 D.S.R.이 평균 3~4%대로 관리되는 등 외채관리가 양호함.
- 사하라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정치적 안정과 정부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신인도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2019년 3월 기준 OECD는 2등급, S&P는 A- 등급, Moody's는 A2 등급을 각각 부여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8. 4. 18 수교 (북한과는 1974. 12. 5 수교, 2014. 2. 19 단교)

주요협정 무역협정(86년)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 구분 | 2016 | 2017 | 2018 | 주요품목 |
|----|--------|--------|--------|-----------------------|
| 수출 | 33,845 | 10,048 | 11,027 | 인조섬유장섬유사, 자동차, 정밀화학원료 |
| 수입 | 682 | 714 | 647 | 동광, 보석 |

해외직접투자 현황(2018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2건, 66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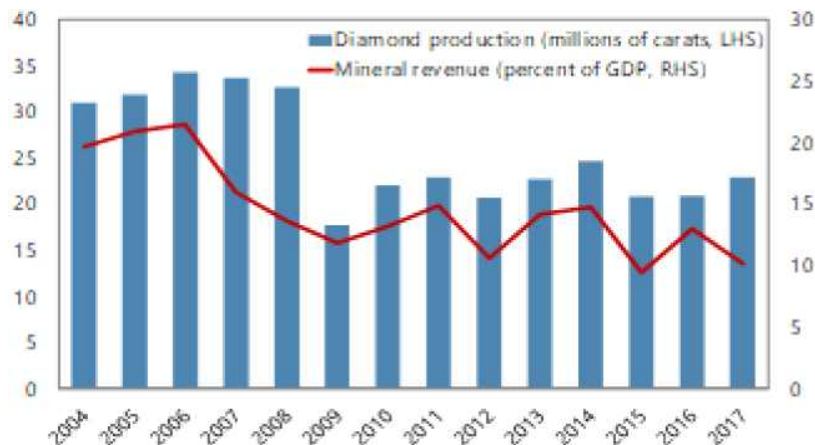
|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e |
|----------|------|------|------|------|-------------------|
| 경제성장률 | 4.1 | -1.7 | 4.3 | 2.4 | 4.6 |
| 소비자물가상승률 | 4.4 | 3.1 | 2.8 | 3.3 | 3.8 |
| 재정수지/GDP | 3.7 | -4.6 | 0.7 | 0.2 | -3.7 |

자료: IMF

다이아몬드 생산 및 수출 호조로 2018년 4%대 중반의 경제성장률 회복 추정

- 보츠와나는 국가경제의 최대 버팀목인 다이아몬드 수출의 증가에 힘입어 2013년까지 10%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세계경기 침체 지속에 따른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2015년 -1.7%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에 그쳤음.
- 2016년 이후 다이아몬드 생산 및 수출이 세계경제 회복세를 타고 증가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2017년 2.4%, 2018년 4.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9년에도 다이아몬드 수요 및 수출 증가와 공공인프라 투자 증가로 4% 중반대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2017년 다이아몬드 생산 및 수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보츠와나의 구리-니켈 채굴기업인 BCL(Bamangwato Concessions Limited)*의 폐업에 따른 전력수요 및 건설 부문 침체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감소함.
- * BCL: 1956년 설립된 보츠와나의 구리-니켈 채굴기업으로 보츠와나의 민간기업 중 두 번째로 많은 4,200여명의 노동자를 고용해왔으며, 보츠와나 전력수요의 20%를 차지했음. 그러나 2014년부터 시작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경영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2016년 폐업함.

보츠와나 다이아몬드 생산량 및 GDP 대비 광업 부문 수입 비중 변화 추이



자료: IMF

국내경제

광물 및 관세수입 감소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재정수지 적자 전망

- 보츠와나 정부는 신중하고 안정적인 재정정책을 지속해온 결과 2000년대 들어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거나, 적자를 기록해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3년간을 제외하면 적자폭이 크지 않음.
- 정부는 재정지출이 GDP의 40%를 넘어가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해당 기준을 준수해 오고 있음.
 - *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전후한 보츠와나의 재정수지/GDP(%):
5.6('07) → -7.5('08) → -13.3('09) → -7.4('10) → -0.1('11) → 0.8('12) → 5.6('13)
- 2015년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의 침체에 따른 다이아몬드 수출가격 하락,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s) 입주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등으로 인한 정부수입 감소로 인해 2015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4.8%로 적자 전환했으나, 보츠와나 정부의 신중한 재정정책에 따라 2016년 GDP의 0.7%, 2017년 GDP의 0.2%로 흑자를 회복함.
- 2018년에는 광물 및 관세수입 감소와 2019년 대선 준비에 따른 경비지출 증가로 재정수지가 GDP 대비 -3.7%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9년에도 -3%대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나 향후 광물수입 회복에 따라 2021년경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됨.
- 보츠와나 정부가 50% 소유한 다이아몬드 생산기업 Debswana*의 Jwaneng, Orapa 광산 확장사업관련 대규모 투자로, 보츠와나 재정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광물 수입이 2018년에 전년 대비 감소함.
 - * Debswana: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기업인 남아공 Da Beers와 보츠와나 정부의 합작 투자회사 (Da Beers 50%, 보츠와나 정부 50%)로 1969년 설립됨. 현재 총 4개의 광산(Jwaneng, Orapa, Damtshaa, Letlhakane 광산)을 소유, 운영 중이며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의 30%를 담당하고 있음
- 남부 아프리카 관세동맹(SACU)*에 따른 관세수입은 보츠와나 재정수입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시장의 가격 변동, 교역 패턴의 변화에 따라 수입이 줄어드는 추세임.
 - * SACU(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1910년 창설된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관세동맹으로 보츠와나, 남아공,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랜드의 5개국으로 구성됨. 각 국은 세입을 CRP(Common Revenue Pool)에 모은 뒤, 국가별 비율(남아공 50%, 보츠와나 20%, 나미비아 18%, 스와질랜드 7%, 레소토 6%)에 따라 세입을 배정함.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201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 후반대로 상승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Pula화의 미 달러 대비 환율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임금 인상률,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상품의 국제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2013년 이래 하락 추세를 보여, 2016년에는 2.8%로 2013년 대비 3.1% 포인트나 하락하였음.
- 2017년에는 Pula화 약세 지속, 원유를 비롯한 상품의 국제가격 상승 추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3.3%로 상승함.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는 남부 아프리카의 엘니뇨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 후반대로 전년 대비 상승할 전망이다.
- 보츠와나 중앙은행(BoB)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중기적 목표치를 3~6%로 관리해 오고 있음.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 구 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e |
|-----------|-------|-------|-------|-------|-------------------|
| 경 상 수 지 | 2,146 | 813 | 2,145 | 2,149 | 931 |
| 경상수지/GDP | 13.2 | 5.6 | 13.7 | 12.4 | 4.9 |
| 상 품 수 지 | 761 | -650 | 1,492 | 930 | 145 |
| 상 품 수 출 | 8,517 | 6,288 | 7,363 | 5,934 | 5,957 |
| 상 품 수 입 | 7,756 | 6,939 | 5,871 | 5,005 | 5,812 |
| 외 환 보 유 액 | 8,153 | 7,390 | 7,055 | 7,368 | 7,061 |
| 총 외 채 | 3,339 | 5,037 | 4,654 | 4,707 | 4,868 |
| 총외채잔액/GDP | 20.5 | 34.9 | 29.7 | 27.1 | 25.5 |
| D.S.R. | 1.2 | 3.4 | 3.1 | 4.3 | 4.3 |

자료: IMF, EIU

상품수입 증가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

-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의 침체로 다이아몬드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2015년 상품수지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서비스수지와 경상이전수지의 흑자 유지로 경상수지는 GDP 대비 5.6%의 흑자를 기록함.
- 관광산업 수출액 증가를 통한 서비스수지 흑자와 인접국인 남아공 등에 주로 광산 노동자로 취업한 보츠와나 국민들의 자국 앞 송금에 의한 경상이전수지 흑자*는 보츠와나의 경상수지 흑자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보츠와나의 경상이전수지 흑자 추이(백만 달러):

1,733.7('14) → 1,672.4('15) → 1,174.4('16) → 1,676.6('17) → 1,320.1('18^e)

- 2016년과 2017년에는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의 경기 호전과 다이아몬드 생산 및 수출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증가로 경상수지가 GDP 대비 12~13%대의 흑자를 지속함.
- 2018년에는 건설 프로젝트로 인한 자본재 수입 증가와 공공 부문 급여 인상에 따른 소비재 수요 및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감소하여 경상수지 흑자폭이 GDP 대비 4.9%로 감소하였으며, 2019년에도 동일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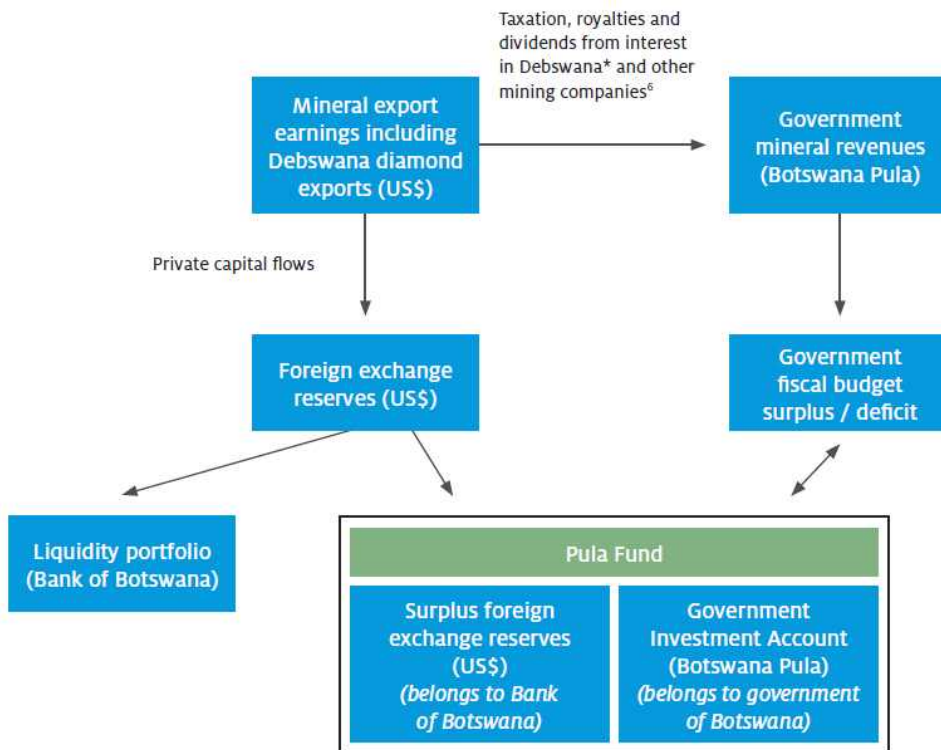
대외거래

월평균수입액 1년분에 육박하는 안정적인 외환보유고 유지

- 2018년 보츠와나의 외환보유고는 다이아몬드 수출 호조에 따라 70.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도 71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이는 보츠와나의 2018년 GDP의 37%, 월평균수입액의 11.2개월분에 해당하는 규모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외환보유고의 3분의 2는 보츠와나 국부펀드인 Pula Fund*로, 3분의 1은 유동성 유보금(Liquidity portfolio)으로 귀속되어 운영됨.

* Pula Fund: 보츠와나의 다이아몬드 수출을 통한 수익을 장기간 보전하기 위해 1994년 설립한 펀드로, 기금의 약 30%는 보츠와나 중앙은행이 관리하며, 나머지 70%는 보츠와나 정부가 정부투자계정(Government Investment Account)에 자국통화로 별도 관리하고 있음.

Pula Fund 자금 흐름도



자료: Natural Resource Governance Institute

외채상환능력

총외채잔액/GDP 비중과 D.S.R 모두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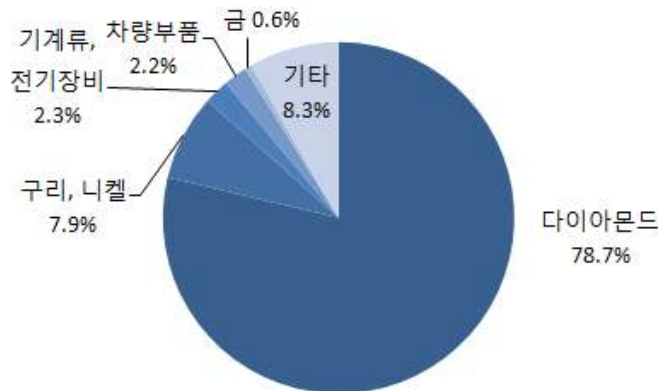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2015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유지함에 따라 2018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5.5%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는 23%대로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 2018년 전까지 지속적으로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해 왔으며, 경상수지 또한 흑자를 지속함에 따라 여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수지적자 보전을 위한 대외차입 압력이 낮음.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5년 이래 지속적으로 3~4%대의 낮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오고 있으며, 2019년에도 3%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구조적취약성

다이아몬드 수출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비광업 부문 육성을 위한 노력 지속

- 보츠와나는 대부분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차 산업, 특히 다이아몬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세계 경기변동에 따른 다이아몬드 국제수요 변동 등 대외적 충격에 취약한 편임.
- 2017년 기준 광업 부문은 보츠와나 GDP 기여도의 33%, 수출 총액의 90%, 재정수입의 35%를 차지하고 있음.

보츠와나 수출 품목 비중 (2017년 기준)



자료: E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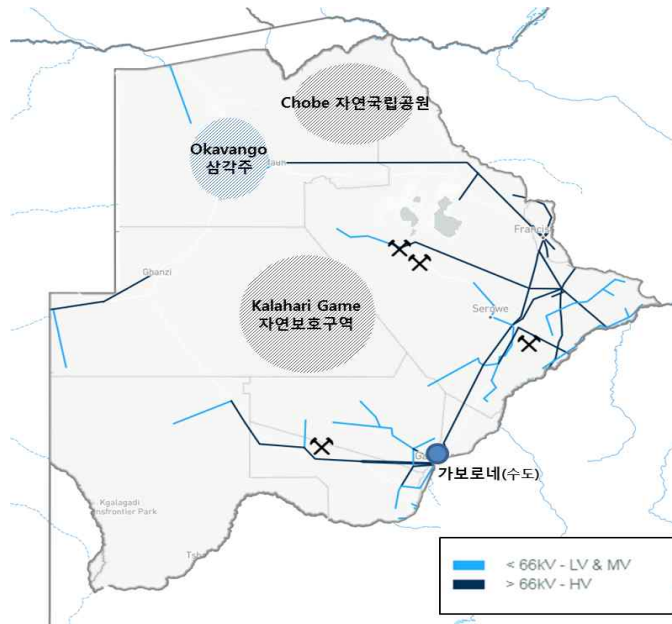
- 정부는 지난 20년간 산업 다각화를 중요 과제로 인식해왔으며, 2017년 수립한 제11차 국가개발계획(The 11th National Development Plan, 2017~23)의 주요 논제에 비광업 부문 육성을 포함시켜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기대만큼의 성과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만성적인 전력 및 상수도 시설 부족이 경제발전에 걸림돌

- 보츠와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프라 부족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만성적인 전력 및 상수도 시설 부족이 민간 부문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어 산업구조 다변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USAID에 따르면 보츠와나의 전 인구 대비 전력 공급률은 2017년 기준 60%(도시 65%, 농촌 54%)에 그치고 있으며, 발전방식은 100% 화력발전(95.8%는 석탄화력발전)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츠와나 국영 전기회사인 BPC(Botswana Power Corporation)는 2018년 1월, 구리 산업과 관광업 중심지인 북서부 지역의 송전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및 Morupule B 발전소 확장 사업*에 착수하는 등 전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중임.
 - * Morupule B 발전소 확장 사업은 한국 기업인 포스코에너지와 일본 마루베니상사가 각각 50% 지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 중이며, 2022년 준공 예정임.
- 보츠와나는 건조한 기후 및 상수도 시설 미비로 물 부족을 겪어오고 있음. 특히 2015년, 2017년에는 심한 가뭄을 겪으며 레소토에서 물을 수입해오는 상황이 발생함.

구조적취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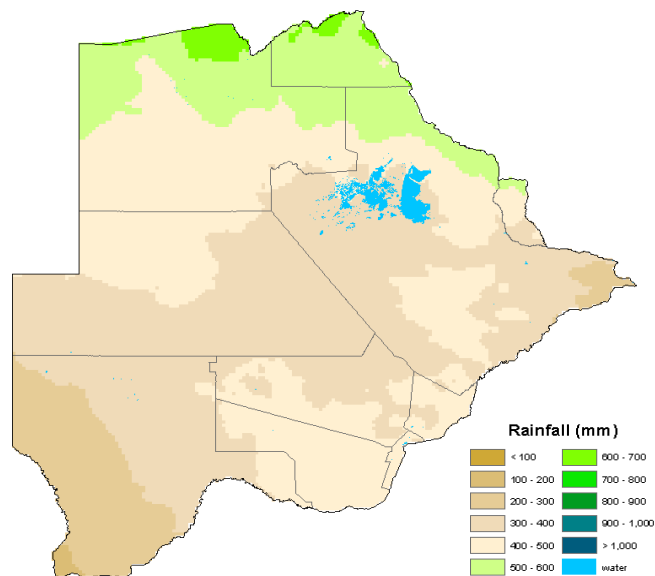
보츠와나 주요 송배전망 분포도 (2017년 기준)



자료: World Bank

* 주요 송배전망이 남동부지역(수도, 광산)에 치우쳐 있어 북서부지역(관광유망지)의 전력 인프라 확충 필요.

보츠와나 강수량 분포도 (2001~14년)



자료: USGS, USAID

성장잠재력

다이아몬드 등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

- 보츠와나는 러시아와 캐나다에 이어 생산량(2,300만 캐럿) 기준 세계 3위, 생산가치(33.29억 달러) 기준 세계 2위의 다이아몬드 생산국이며, 보츠와나의 Jwaneng 광산은 세계 다이아몬드의 15%를 생산하는 세계 1위 규모의 광산임.
- 보츠와나산 다이아몬드는 대부분 산업용급(industrial diamond)이 아닌 보석급으로, 캐럿당 평균 생산가치는 러시아와 캐나다산 다이아몬드보다 높음.
- 보츠와나 다이아몬드 회사 Debswana가 소유, 운영하는 대규모 킴벌라이트 파이프(kimberlite pipe)* 광산인 Orapa와 Jwaneng 광산은 보츠와나 다이아몬드 생산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Damtshaa, Letlhakane, Ghaghoo 등 비교적 소규모인 7개 광산이 있음.
 - * 킴벌라이트 파이프: 거꾸로 세운 원뿔 모양의 대규모 다이아몬드 광상 (鑛床)
- Debswana는 2010년부터 7년에 걸친 Jwaneng 광산 확장 사업(Cut-8)을 시작했으며 이는 현재보다 650m 가량 더 깊은 곳까지 접근 가능케 만들어 광산 수명을 2040년 이후로 연장 가능케 할 것으로 보임.
- 다이아몬드 외에 구리, 니켈 등의 금속광물도 생산하고 있으며, 광업 부문의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됨.

세계 주요 다이아몬드 생산국 (2017년 기준)

| 국가 | 생산량 (천 캐럿) | 생산가치 (백만 달러) | 캐럿당 생산가치 (달러/캐럿) |
|---------|------------|--------------|------------------|
| 러시아 | 42,615 | 4,112 | 96.5 |
| 캐나다 | 23,234 | 2,060 | 88.7 |
| 보츠와나 | 22,961 | 3,329 | 145.0 |
| 콩고민주공화국 | 18,903 | 157 | 8.3 |
| 호주 | 17,135 | 200 | 1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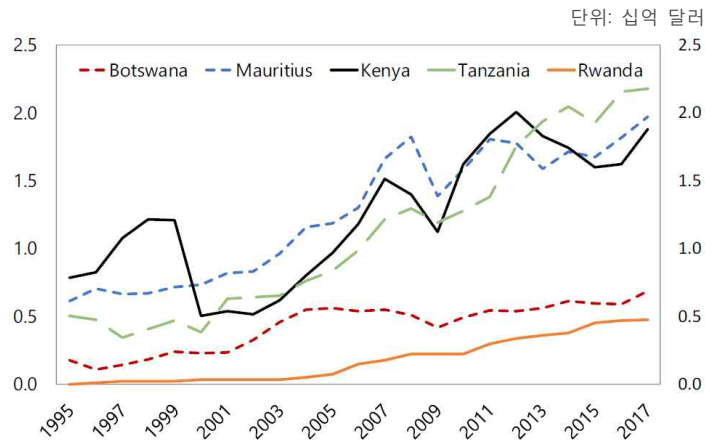
자료: Kimberley Process Certification Scheme

성장잠재력

관광 부문의 풍부한 개발 잠재력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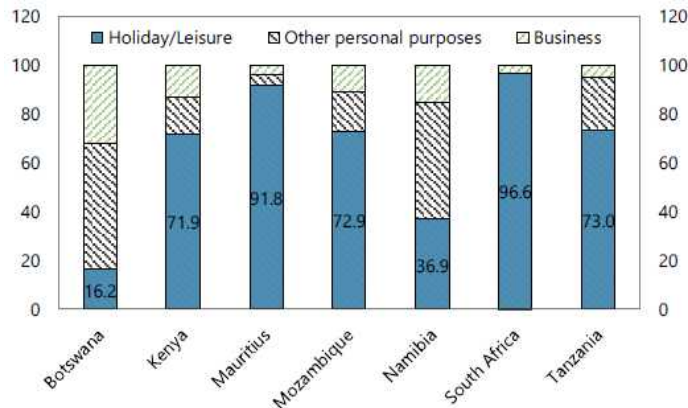
- 보츠와나는 Okavango 삼각주, Kalahari Game 자연보호구역, Chobe 자연국립공원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 안정과 치안 또한 양호해 관광 부문의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관광산업은 2017년 기준 보츠와나 GDP의 4%를 차지하고 7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등 최근 성장 중에 있으나, 관광산업으로 연간 2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탄자니아, 케냐 등의 여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규모가 작은 수준임.

주요 아프리카 국가 관광업 수익 비교 (1995-2017년)



자료: IMF

주요 아프리카 국가 방문 목적 비율 비교 (2016년 기준, %)



자료: IMF

성장잠재력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상위권이나 동시에 성장 한계도 존재

-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CI) 보고서에 따르면 보츠와나의 경쟁력 순위는 2018년 140개국 중 90위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모리셔스(49위), 남아공(67위), 세이셸(74위)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음.
- 부문별로는 거시경제환경(공동 1위)과 노동시장 효율성(57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시장규모(111위)와 혁신역량(101위)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음.
- 보츠와나는 내륙국으로, 상품 수출입 수송을 남아공 등 바다에 면한 인접국들에 의존해야 하는 지리적 약점을 지니고 있음.
- 서부 및 북부는 나미비아, 동부는 짐바브웨(내륙국), 남부는 남아공에 면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WEF)의 인프라 영역에서는 도로(13위)와 철도(59위)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공항 연결성(127위), 항만시설(106위)에서는 내륙국이라는 입지로 인해 낮은 평가를 받음.
- 또한 국토의 대부분이 온난 반건조(semi-arid) 기후로 토질이 척박하며, 2018년 기준 인구가 총 2.34백만 명으로 경제성장에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주요 아프리카 국가 인구('18): 케냐 48백만, 남아공 57백만, 탄자니아 51백만, 나미비아 2.4백만

정책성과

산업다각화와 고용증대를 위한 친시장 정책 추진 지속

- 보츠와나 정부는 광업 부문에의 과도한 경제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2016년 2월 경제촉진프로그램(Economic Stimulus Program, ESP)을 발표했으며, ESP 목표 달성을 위해 같은 해 12월 제11차 국가개발계획(NDP11, 2017~23년)을 수립, 발표함.
- ESP는 경제구조 다변화, 전력·상하수도 중심의 사회기반시설 구축, 사업환경 개선, 국내기업 육성 등을 통한 비광업* 부문 육성과 고용 증대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음.
 - * 비광업 부문: 인프라, 농업, 관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 NDP11는 ESP의 핵심목표를 이어받아 규제체계 개편, 민관협력(PPP)을 통한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 기술 발전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실제로 지난 제10차 국가개발계획(NDP10)의 일환으로 보츠와나 정부는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s, SEZs) 설정을 통해 해당 구역의 세율을 낮추고, 제조업을 위한 원재료 수입 시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비광업 부문의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중임.

세계 중위권이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상위권의 사업환경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9 보고서에 따르면, 보츠와나의 사업환경은 조사대상 190개국 중 86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모리셔스(20위), 르완다(29위), 케냐(61위), 남아공(82위)에 이어 5위에 해당함.
- 부문별로는 건축허가 취득(31위), 납세(51위), 국가간 수출입(55위)의 순위가 비교적 높은 반면, 창업(157위), 계약이행(134위), 전력사용(133위)에서는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음.
- 보츠와나 정부는 투자무역청(Botswana Investment and Trade Centre, BITC)에 통합센터(One Stop Center, OSC)를 설치해 관세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창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음.

정치동향

여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와 달리 독보적인 정치적 안정성 유지

- 1966년 9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초대 대통령 Seretse Khama가 결성한 보츠와나민주당 (Botswana Democratic Party, BDP)이 독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정권을 계속 장악하고 있음.
- 그러나 일찍이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되어 여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독립 이래 단 한 번도 쿠데타, 전쟁, 내전, 독재 등 정치적 불안요인을 경험하지 않고 있음.
- BDP의 정권 장악 지속도 선거에 의한 결과이며, 선거를 전후한 폭력 사태도 경험하지 않고 있음.
- 2008년 4월 제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Ian Khama 전 대통령은 Serets Khama 초대 대통령의 장남이나, 부친(1980년 퇴임)으로부터의 권력 승계가 아닌 BDP 소속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거쳐 대통령에 선출되었음.
- 2018년 4월, Ian Khama 전 대통령의 2번째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BDP 소속인 Mokgweetsi Masisi 부통령이 다음 총선까지 대통령직을 승계해 수행 중임.

역대 보츠와나 대통령 (1966년 ~ 현재)

| 대통령 | 집권기간 | 집권 횟수* | 소속정당 |
|------------------------------|------------------|--------------|------|
| Seretse Khama | 1966 ~ 1980 | 4회 | BDP |
| Quett Masire | 1980 ~ 1998 | 3회 | BDP |
| Festus Mogae | 1998 ~ 2008 | 2회 | BDP |
| Ian Khama | 2008 ~ 2018 | 2회 | BDP |
| Mokgweetsi Masisi (현 부통령) | 2018 ~ 2019. 10월 | 대선까지 대통령직 승계 | BDP |

* 1998년 야권의 요구에 따른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임기 5년)은 1회 연임만 가능해짐.

정치동향

2019년 10월 총선에서 정권 및 정책 연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

- 보츠와나는 대통령 선거를 따로 치르지 않고,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정당의 당수가 대통령이 되는 내각 책임제를 가미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음.
- 의회는 단원제로 총 63석이며, 그 중 57석은 선거, 4석은 대통령 지명, 나머지 2석은 대통령과 검찰총장으로 구성됨.
- 2019년 10월 차기 총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집권 여당인 BDP의 수장이자 현 부통령인 Mokgweetsi Masisi가 BDP 지지율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고 있음.
- 2013년까지 10%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던 시절과 달리 2014년 이후 한 자릿수 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성장이 주춤함과 동시에 BDP 소속 의원의 부정부패 혐의가 불거지면서 BDP 지지율이 비교적 하락세를 보임.
- 그러나 BDP당에 대응하기 위해 제1야당인 UDC(Umbrella for Democratic Change)를 중심으로 결성한 야당 연합이 선거구 분배와 관련해 내부 갈등을 겪으며 정치세력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차기 총선에서의 건국 이래 최초 정권교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됨.

2009년, 2014년 총선 결과 비교

| 정당 | 2009년 총선 | 2014년 총선 |
|---|-----------------------------------|------------|
| BDP (Botswana Democratic Party) | 45석 | 37석 (▼8) |
| UDC* (Umbrella for Democratic Change) | 8석 (당시 BNF 6석, BAM 1석, 무소속 1석) | 17석 (▲9) |
| BCP (Botswana Congress Party) | 4석 | 3석 (▼1) |
| 대통령, 검찰총장 및 대통령 지명 의원 4석 | 6석 | 6석 (-) |
| 총계 | 63석 | 63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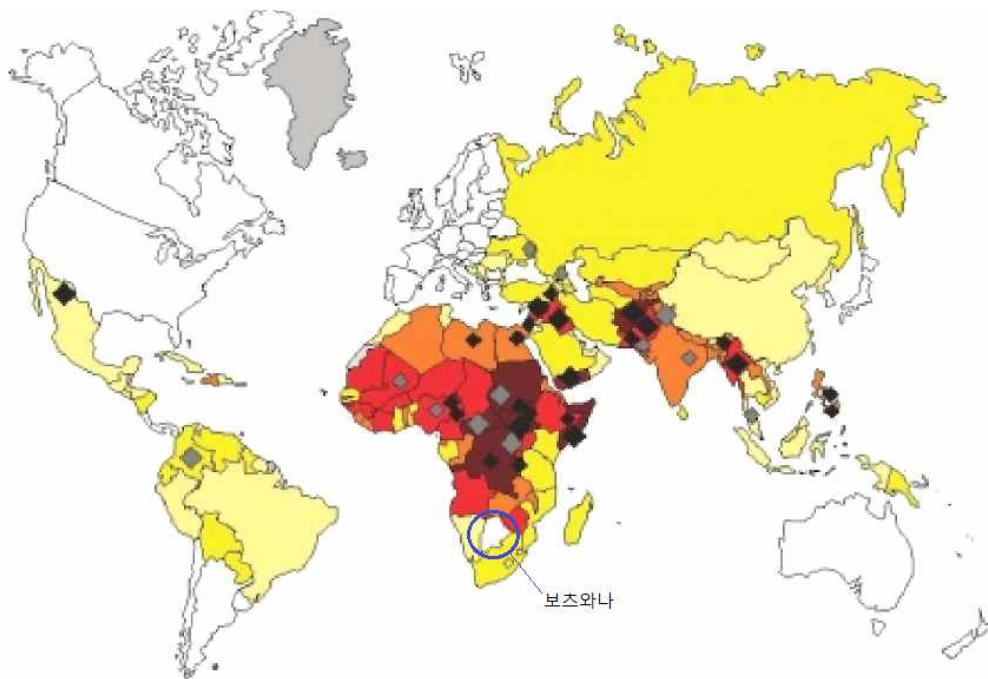
* UDC는 2009년 총선 이후 2012년, BNF(Botswana National Front), BMD(Botswana Movement for Democracy), BPP(Botswana People's Party)가 합쳐져 만든 야당연합으로, 최근 BCP까지 연합에 동참하는 데 합의함.

사회동향

부족 간의 갈등이 적어 사회안정 지속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타 국가들과 달리 사회를 구성하는 부족의 숫자가 적어 부족 간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국명의 기원이 된 Tswana 부족이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며, Basarwa, Basubiya 등 소수 부족들이 각자의 전통적인 거주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음.
- 다만, 서부의 Okavango 삼각주와 Kalahari 사막 지역에 부시맨(Bushman)으로 알려진 San 부족이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위한 강제이주 문제로 정부와 법적분쟁을 벌인 바 있음(2006년 정부 상대로 승소).

전 세계 국가취약평가점수(State Fragility Scores) 분포도(2017 기준)



Extreme(20-25)
 High(16-19)
 Serious(12-15)
 Moderate(8-11)
 Low(4-7)
 Little or No(0-3)

Not Included
 Serious Warfare
 (decreasing)

* 분쟁에 취약할수록 진하게 표시 (갈색, 적색, 주황색)

자료: Center for Systemic Peace

사회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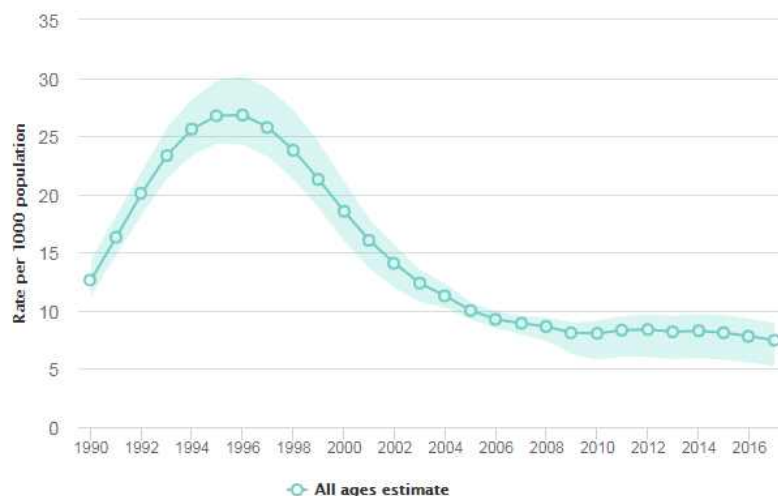
부정부패 문제가 적어 정치적, 사회적 투명성 양호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많은 국가들에 비해 정부 및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문제가 적어 정치적, 사회적 투명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보츠와나는 2018년 180개국 중 34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중 최상위이며, 우리나라(45위)보다도 더 높은 순위임.
 - * 주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CPI 순위: 나미비아(52위), 남아공(73위), 케냐(144위), 앙골라(165위)

높은 HIV 감염률로 인한 노동력 손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다방면 노력

- 보츠와나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병원체인 HIV 바이러스 감염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들 중의 하나임.
- UN 산하 UNAIDS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성인(15-49세) 인구의 22.8%가 HIV에 감염된 상태이며, AIDS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17년 기준 4,100명에 달함.
- 보츠와나의 의료 인프라 수준이 여전히 낮은 관계로 적절한 예방/치료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AIDS 발병으로 인한 기대수명 단축과 노동 불가능 인구 증가 등 노동력 손실로 이어져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2016년 기준 보츠와나 국민의 기대수명은 66세(남성 64세, 여성 68세)로 조사대상국 중 하위권에 해당함.
- 보츠와나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GDP의 4% 가량을 보건 부문에 투자하고 2030년까지 AIDS 퇴치를 목표로 'HIV/AIDS 퇴치 위한 국가전략체계(National Strategic Framework for HIV and AIDS)'를 수립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 중임.
- 실제로 1000명당 HIV 신규감염자 수가 2000년 18.54명에서 2017년 7.47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1000명당 HIV 신규 감염자 수 변동 추이(1990-2017년)



자료: UNAIDS Estimates 2018

국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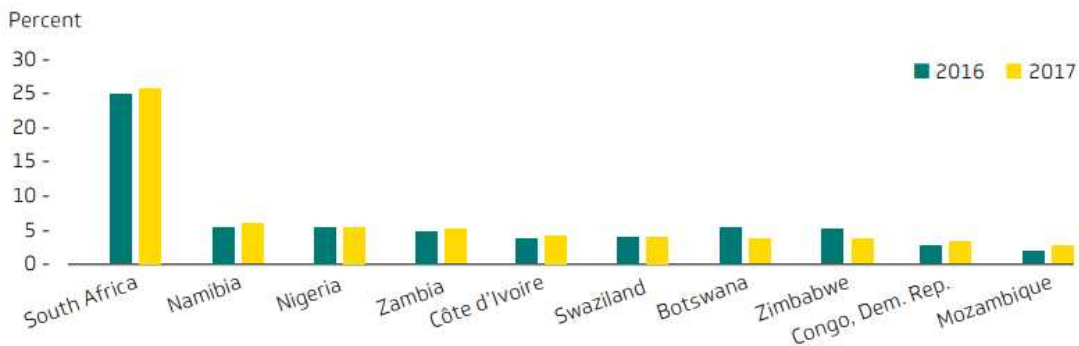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 유지

- 보츠와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사회 안정성이 높고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로써 높이 평가받아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과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특히 미국과는 보츠와나 국방부 설립 및 장교단 군사 훈련 등의 군사원조(security assistance)와 더불어 교역, 개발원조 부문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있음.
 - 보츠와나는 1966년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후에도 영연방(Commonwealth of Nations)*의 회원국으로써 영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음. 영국은 보츠와나의 주요 원자재 수입국 중 하나이기도 함.
- * Commonwealth of Nations: 20세기 초 대영제국 시절 식민지들을 모아 결성했던 'British Commonwealth'에서 비롯되었음. 현재는 회원국 간 선거 감시 등 민주정치를 추구하고 경제·문화·교육·체육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 활동을 벌이는 국가연합체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보츠와나, 남아공, 케냐, 탄자니아 등이 회원국으로 활동 중임.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를 통한 인접국들과 협력 관계 유지

- 보츠와나는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의 회원국으로, SADC의 리더인 남아공을 비롯한 동료 회원국들과 긴밀한 정치·경제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음.
- SADC는 1992년 창설된 협력체로 현재 16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본부는 보츠와나 수도 Gaborone에 위치해 있음. 최근 SADC는 지역 내 인프라 환경 개선을 주요 협력과제로 삼고 지역 인프라 개발계획(RIDMP)을 세워 2027년까지 추진 예정임.
- 다만, 1차상품 생산 및 수출이 중심을 이루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산업구조 및 교역구조 특성상 SADC 회원국들과의 교역규모는 비교적 산업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남아공과의 교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편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간 교역량 비중 상위 10개국



외채상환태도

안정적인 외채관리로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보츠와나는 안정적인 외채관리를 통해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유지하여, 대다수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국가들과 달리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경험이 없음.
- 2018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들의 보츠와나에 대한 익스포저는 단기대출 930만 달러, 중장기 대출 1,060만 달러이며, 원금 및 이자 연체는 없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 평가기관 | 최근 평가 등급 | 종전 평가 등급 |
|---------|--------------|--------------|
| OECD | 2등급(2018.06) | 2등급(2017.06) |
| Moody's | A2 (2016.04) | A2 (2015.12) |

아프리카 국가들 중 유일하게 주요 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A등급 획득

-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보츠와나의 정치·사회 안정과 양호한 채무구조 등을 높이 평가하여, 아프리카 국가들 중 유일하게 보츠와나에 대해 A등급권의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2019년 3월 기준 3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획득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보츠와나와 외에는 모리셔스(Baa1, Moody's), 남아공(Baa3, Moody's) 2개국에 불과함.
- OECD도 동일한 이유로 아프리카 국가들 중 유일하게 보츠와나에 2등급을 부여함.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OECD 등급 상위 3개 국가(보츠와나 제외)
모리셔스(3등급), 나미비아(4등급), 남아공(4등급)

- 보츠와나는 다이아몬드의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세계 경기변동 및 그에 따른 다이아몬드의 국제수요 변동 등 대외적 충격에 취약한 편임. 이에 정부는 산업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2016년부터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른 다이아몬드 수출 증가로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2017년 2.4%, 2018년 4.6%를 기록함. 2019년에도 다이아몬드 세계 수요 및 수출 증가로 4% 중반대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으로 독립 이래 단 한 번도 쿠데타, 전쟁, 내전, 독재 등 정치적 불안요인을 경험하지 않고 있으며, 정치·사회적 투명성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2019년 10월 총선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상존하나, 정책 연속성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보츠와나에 대해 아프리카 국가들 중 유일하게 A등급권의 신용등급 부여를 지속하고 있으며, OECD도 아프리카 국가들 중 유일하게 보츠와나에 대해 2등급 부여를 지속하고 있음.
- 상기 사항을 종합하여, 보츠와나의 신용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B1으로 부여코자 함.

아프리카 주요 국가별 경제지표 비교

※ 각 국 평가일 기준 확인 수치로 최신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수치)

| 주요 경제지표 | | 보츠와나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나미비아 | 나이지리아 |
|------------------|---------|-------|--------------|-------|-------|
| GDP 규모(억 달러) | | 191 | 3,767 | 141 | 4,227 |
| 1인당 GDP(달러) | | 8,168 | 6,560 | 5,923 | 2,180 |
| 경제성장률(%) | | 4.6 | 0.8 | 1.1 | 1.9 |
| 소비자물가상승률(%) | | 3.8 | 4.8 | 3.5 | 12.4 |
| 재정수지/GDP(%) | | -3.7 | -4.6 | -7.6 | -5.2 |
| 경상수지/GDP(%) | | 4.9 | -3.5 | -2.6 | 1.9 |
|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개월) | | 11.4 | 4.2 | 2.8 | 6.8 |
| 총외채잔액/GDP(%) | | 25.5 | 46.5 | 60.6 | 15.4 |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 OECD | 2 | 4 | 4 | 6 |
| | Moody's | A2 | Baa3 | Ba1 | B2 |
| | Fitch | - | BB+ | BB+ | B+ |
| | 수은 | B1 | C1 | C1 | D1 |